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태권도 시범을 따라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을 처음 방문하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태권도복과 검은띠, 영예단종, 한국문화 소개 책자를 선물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과거 일리노이주 상원의원 시절이던 2001년부터 4년간 태권도를 배워 4~5급 수준의 실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 金위원장 '통큰 제안' 나올지 촉각

### 보즈워스 내달 방북... 오바마 정부 첫 북·미 대화

### '도발 VS 제재' 대립 속 북핵 돌파구 찾을지 관심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북한의 초청을 수락하는 형식으로 다음달 8일 평양에 들어가기로 해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10개월여 동안 단절됐던 북·미 양측이 대화 테이블에 마주 앉게 됐다.

특히 지난 5월 북한의 2차 핵실험을 정점으로 도발과 제재카드로 대치해온 양측이 이번 대화를 통해 국면전환의 돌파구를 마련할 지 주목된다.

미국이 대북 특사를 평양에 보내는 것은 클린턴 행정부 당시인 1999년 5월 윌리엄 페리 대북정책조정관과 2002년 10월 부시 행정부 시절 제임스 켈리 국무 차관보에 이어 세번째다.

현 국면에서 북·미 대화 성사가 갖는 의미와 상징성은 '뚝직'하다. 무엇보다도 버락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북·미간 공식 대화라는 점이 주목된다.

제재와 대화의 '투트랙' 압박을 펴온 미국과 이에 강·은 양면으로 맞서온 북한이 직접 대화의 장에 나오므로써 북핵 교착국면을 풀 새로운 돌파구 모색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또 북핵 해결의 다자협의 틀인 6자회담의 재가동 여부를 가능해보는 시금석의 의미도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제6차 6자회담 3차 수석대표 회동 이후 기능이 정지된 6자회담이 재가동되느냐, 아니면 새로운 협상 틀로 대체

되느냐를 확인해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외교가의 지배적인 관측이다.

그러나 과연 이번 대화가 의미있는 결론을 도출해낼 지는 아직 미지수다. 당장 양국이 이번 대화를 바라보는 근본시각에서부터 차이를 보이고 있어 획기적인 합의점을 끌어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에서는 돌출변수가 많은 북핵 사안의 성격상 북핵 대화가 도중에 '의미있는 협상'으로 바뀔 소지가 얼마든지 있다는 관측도 많다. 과거에도 미국 정부당국자의 방북과 정에서 '깜짝카드'가 등장한 사례는 적지 않았다.

특히 보즈워스 특별대표는 이번 방북에서 북한 외교의 실세인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과 면담하고 김경일 위원장에게 건네질 오바마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할 예정이어서 양측이 의견교환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변수가 나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

## 광주 온 정동영 의원 인터뷰

# "현 민주당 상식도 경우도 없다"

대답=박치경 정치부장

광주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반도 평화비전'이라는 주제 강연차 광주에 온 무소속 정동영 의원(전주 덕진)을 19일 오후 서구 라마다프라자 호텔에서 만났다.

정 의원은 이날 광주일보와 인터뷰에서 "경우(境遇)와 상식이 통하는 사회, 경우와 상식이 지배하는 나라가 세계를 주도할 것이다"며 "상식의 정치인, 경우를 지키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정 의원은 "용산 참사·4대강·세종시 등 사회 곳곳에서 '경우'와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그로 인해 소리가 나고 에너지를 소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도 경우에 벗어나 있기는 마찬가지다"며 "과거와 기록권을 버리고 개방해야 정권을 되찾아올 수 있고 그게 경우에 맞다"고 주장했다.



-2012년 대선에서 정권 교체가 가능하겠는가. 그 요건은.

▲예지력을 가진 한 정치학자에게 묻자 그는 "2012년 정권교체를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싶다"고 했다. 이를 해석하면 '당신들(민주당)에게 달렸다'는 말이다. 결국 '통합'이다. 여기에는 원칙이 있어야 한다. 첫째, 과거의 균열(친노·반노·비노)과 차이(실용·개혁·중도·진보)를 뛰어넘고 둘째, 기록권을 버리고 개방해야 하며 셋째, 일대일 맞대결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필승한다.

- '정동영계가 사실 존재한다. 지방선거에서 '각지도생'이라고 할 것인가, '지원할 것인가'.

▲정동영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뜻을 같이하는 사람, 친한 사람들이 있다. 그 분들이 지방선거에 출마한다면 적극 도울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 전략 중 호남에선 민주당이, 영남은 친노신당(국민참여당), 수도권은 연합 공천을 통해 한나라당에 맞서야 한다는 아권의 시나리오가 있는데.

▲일련 설득력이 있다. 이제 친노신당은 실체다. 인정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골육상쟁'을 해서는 절대 안된다는 것이다. 지방선거에서 최대한 공동분모를 찾아야 한다.

-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다녀갔다. 통일부장관을 지낸 남북문제 전문가로서 북핵문제 해법은.

▲북핵 문제의 해법은 '포괄적 해결', 즉 '패키지 딜'이다. 미국과 중국은 여기에 공감하고 있다. 남은 건 한국 뿐이다. 이명박 정부의 '원샷 딜'이나 '벤치론'(기타리는 것도 전략)은 해법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를 미국의 뒷다리를 잡지 말고, 벤치(후보선수)에서 일어나 뛰어야 한다. 그리고 직접 골을 넣어야 한다.

- 대한민국의 미래 기치는 뭐냐.

▲인간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행복이다. 정치의 지향점도 국민행복이다. 불행한 사람이 한 명도 없도록 하는 게 국가의 목표 아니겠는가. 특히 청년실업 문제는 서둘러 해결해야 한다. 청년들은 자존심과 호기심이 힘이다. 취업 애로 때문에 '기'가 꺾어서는 안된다. 지금 당장 '청년의무고용제' 시행을 제안한다. 또 중소기업 육성에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청년들은 광주를 떠나 세계로 향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이 되어 돌아와야 한다.

/정리=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사진=최병기기자 choi@kwangju.co.kr

### 일방 독주하는 정부 앞에 콩과 콩깍지 싸워서야

### 모든 계파 뭉쳐 한나라와 1대1 대결 땀 대선 필승

- '정동영'은 호남에게 무엇인가. 아울러 대한민국의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나.

▲정동영에게 호남은 어머니다. 당연히 정동영은 '호남의 아들'인 동시에 대한민국의 아들이다. 어머니는 나에게 '경우지 게 살라'고 가르쳤다. 그게 호남의 정신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 곳곳에 '경우'와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 대표적으로 '언론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그렇다. 경우와 상식이 벗어나기 때문에 소리가 나고 에너지가 소진되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이렇듯 '경우'가 부족하다. 부족한 '경우'를 찾는 게 정치다.

- 경우와 상식을 강조하는데 (자신의 복당과 당 운영 등 관련)지금의 민주당은 어떻다고 생각하는가.

▲경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4대강, 세종시 등 일방적으로 몰아부치는 정부와 한나라당도 경우가 아니지만, 이를 놀려야 할 민주당도 '경우'가 바르지 않아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은 민주당이 정권을 되찾아오기를 원하고 있다. 그 길은 '통합'밖에 없다. 민주당은 이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콩깍지를 태워 콩을 삶으려' 해서야 되겠는가. (삼국지 중 조조의 아들 조비가 동생 조식과 갈등하는 고사를 비유해 아권의 결속을 강조했다)

- 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재보선에서 고향에서 국회의원에 출마해 당선됐다. 반면 손학규 전 대표는 당 승리에 힘을 쏟고 무대 뒤로 돌아갔다. 손 전 대표의 행동과 비교되는데.

▲당은 당원들의 것이지 특정 사람의 것이 아니다. 당시 당(당원)은 나를 지지했다. 당원의 뜻과 당 지도부의 뜻이 정면으로 충돌한 것이다. 누가 '경우'에 바른 지 직접 묻고자 출마했다. 또 '정치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선택이었다. 정치를 하려면 국회의원이 돼서 원내에서 해야 한다. 국회 밖에서 하는 것은 원외이고 '운동'이다. 이명박 정권이 하는 일에 분노가 일고 대선 패배의 책임감도 느껴져 돌아왔다. 손 전 대표도 훌륭한 일을 하셨다. 다만 당에 직접 들어오면 더 크게 도움이 됐을 것이다. 공통의 목표는 2012년 '통합'밖에 없다. 민주당은 이를 외면하고

## 평화공원에 광주 상징 조형물 세운다

### 60억 규모... 내년 공모 통해 설치

광주시가 시청 앞 평화공원(옛 미관광장)에 60억원의 예산을 들여 광주의 역사를 조망하는 조형물들을 설치한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평화공원에

광주를 상징하는 조형물 6개를 설치하기로 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10억원을 반영했다.

시는 조형물 1개에 10억원을 들 것으로 예상하고, 내년에 공모를 통해 조형물 1개를 설치하고 나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나머지 5개를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가 구상하는 상징조형물은 ▲선비정신

▲의병항쟁 ▲광주학생독립운동 ▲5·18 민주화운동 ▲문학과 예술 ▲고싸움 놀이 등으로, 내년에 우선 의병항쟁 상징물을 건립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광주를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을 건립함으로써 외지 관광객에게 광주에 대한 이미지를 업그레이드시키고, 광주시민의 자부심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조형물의 설치 장소와 주제에 대한 시민 공감대 부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윤영기자 perfoot@



www.nanomtech.co.kr

대표번호 1577-8515

## 황금의 5분을 아십니까?

하루 5분만 투자하여 평생 건강을 지키는 방법

5분만 투자하여 평생 건강을 지키는 방법

5분만 투자하여 평생 건강을 지키는 방법





광주비otech수업과 공동연구개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친목제대우기

편의추천기 사용 시 효능신속히 나타남

